

道와 科學



李 東 植
(延世醫大教授)

1. 왜 道가 問題가 되나?

道에 대한 관심은 한마디로 말해서 道는 우리 東洋文明의 核心이고 西洋文明의 崩壞의 症狀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이로부터의 脫出 또는 解決의 処方으로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西洋文明의 특징은 Platon 이후 모든것을 概念化, 理論化함으로서 主觀과 客觀, 精神과 物質 또는 身體, 人間과 自然, 人間과 人間을 分離하는 것이고 오늘날의 西洋文明의 危機는 여기서 오는 必然的인 歸結이다.

이러한 危機의 증상을 열거하면 한마디로 “現代人의 疎外”란 말로 표현된다. 이것은 다른말로 하면 人間이 가지고 있는 可能性, 潛在能力을 成就, 實現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근대화는 Spiritual Malaise, 疎外,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다.

科學的 근대화는 人間性을 박탈하고 감정을 主觀的이라고 배격하고 愛憎의 감정을 상실케 하고 人間關係가 기계적으로 되어 모든 인간을 고독에 빠지게 하고 있다. 인간과 세계를 分離하고 還元主義(reductionism)는 脫人間化(De-humanization)을 초래하고 인간의 主体性을 상실하게 되고 自尊心이 저하하고 自己愛에 빠지

게 되고 期待低下를 초래한다. 한마디로 科學이 精神的價值를 破壞한다는 것이다. Toynbee가 말한 斷片的(fragmentation)이란 말로 특징 지을 수도 있다.

科學은 우리자 원하는 것만을 追求하기 때문에 부분만을 認識하고 자연을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 거꾸로 自然의 支配를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支配”가 아닌 東洋的인 “參與”로서만이 전체적인 認識을 가능케 한다. 이는 데카르트의 二分法의 결과이며 이것을 脫皮하자는 것이다. 全體속에 모든 部分이 들어있다. 이것이 初期 Greece 哲學者나 道의 思想이다(宇宙는 全一하고 有機的인 關係에 있다는). 科學이 나와서 世界와 人間을 分離함으로서 空虛感과 孤獨이 온다. 한마디로 主客의 분리에서 오는 것이고 理性的인 것과 論理的인 것의 混同에서 온다고도 볼 수 있다. Karl Pribram은 Rational은 Harmonic 하고 Musical하다고 말한다.

因果律의 否定이나 線的인 발전이 없다는 주장, 科學을 人間化해야겠다는 주장이나 Alfred Korzybski의 地圖는 領土가 아니라는 표현 등이 모든것이 道를 指向하고 일치해가고 있다. 이는 佛敎에서 달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類似하다. 道는 主客一致요, 主体性이고 휴머니

즘의 極致요, 宇宙의 原理고 窮極의인 實在이 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주로 科學의 道化, 道의 科學化 그리고 道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西洋思想(宗敎哲學)과 科學, 精神分析, 精神治療와의 관련에서 다루어 보기로 하겠다.

2. 道와 現代科學

西洋의 科學이란 Georg Picht의 말을 빌리면 “西洋의 形而上學 即 Platon의 형이상학에서 派生된 것이고 Platon의 형이상학은 이론에 土台를 두고 있고 理論은 論理에 立脚하고 있으며 논리는 獨斷(dogma)이기 때문에 眞理가 아니다” 그러므로 “西洋文明은 인간과 자연문화를 파괴한다”고 했다. 眞理에 도달할 수 있는 思考方式을 省察(meditation)이라고 그는 불렀다. 近代科學은 역사적으로는 르네상스의 絶頂期에 出現한 것이다. Descartes에 이르러 精神과 物質은 분리되고 이것을 土台로 Newton의 古典物理學이 수립되어 모든 科學의 模型이 되었다. 그러나 古典物理學의 絶對空間이나 質量的 物質이 否定되고 因果律이 不確定性原理에 의해서 부정되고 古典物理學의 主觀이 排除된 客觀이 虛構임이 밝혀져 主客一致의 東洋思想(道)의 主觀主義로 現代物理學이 접근을 强요당하고 있다.

19世紀末 電磁場現象의 理論的 矛盾을 해결하기 위하여 觀察의 대상과 觀察者의 關係를 細密하게 분석해서 相對性原理를 樹立했고 絶對空間이나 絶對時間이 없고 粒子는 實體가 없고 “過程” “作用”이고 主觀을 떠난 客觀的인 관찰이란 있을 수 없고 오로지 參與의 觀察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말하자면 主觀을 배제한 客觀的觀察은 觀察者自身이 自覺하지 못한 主觀의 投射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다음 제3부에서 다룰 道의 核心이다.

Percival Bridgman이나 Michael Polanyi의 眞理는 私的인 것이지 公的인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道는 깨달은 사람만이 안다는 것과 相通한다. Polanyi의 科學의 發見에 대한 견해는 새로운 사실의 발견이기 보다 이미 알려진 사실

을 설명하는 Mechanism이나 System을 발견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이고 (Copernicus, Newton, Darwin, Einstein) 이것은 形態心理學에서 말하는 “Gestalt”의 知覺과 類似한 것이다. 易에서 말하는 象과 비교해볼만 하다.

“Spontaneous Emergence 이고 再編成(Reorganization) 이고 위대한 발견은 명백한 것을 깨닫는 것이고 直觀이다” “궁극적으로는 個人的 判斷 即 良心으로 귀결된다” 과학은 芸術이라고 하고 Abram Maslow는 과학이 機械化되어 非人間化하는 것을 막기위해서 人間主義的 科學을 提唱하면서 受動的인 道的態度(Passive Taoist Attitude)를 강조했다.

動物實驗에서는 실험동물의 성격이나 內的生活史, 과거의 관계, 그리고 實驗者의 성격과 동물과 실험자와의 관계가 實驗成績을 좌우한다는 것이 알려졌고 大腦生理學에 있어서는 大腦의 구조가 廣汎投影系와 特殊投影系로 나누어져 身體內部와 五官을 통해서 들어오는 外部에 관한 정보가 한 갈래는 大腦皮質全體로 퍼져나가고 한 갈래는 知覺中樞로 퍼져나간다. 前者를 廣汎投影系라 하고 事物의 本質을 파악하는 直觀이고 後者は 特殊投影系로서 사물의 본질은 파악못하나 분석을 한다. 우리의 事物知覺은 이 두가지 기능의 종합으로서 事物認識이 完全하게 된다. 直觀은 東洋의 全體知覺이고 分析은 西洋의 分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중전에는 右側腦의 기능이 분명치 않던 것이 근래의 연구로는 審美, 洞察, 芸術活動에 종사하고 左腦는 論理的 思考 分析에 종사한다는 주장이 있다. 美國의 Roland Fisher는 황홀상태와 坐禪이나 요가의 三摩地 등의 명상상태를 大腦生理學的으로 腦波 등으로 규명하고 無意識과 意識이 一致하는 경지가 入神의 境地이고 意識이 無意識을 완전히 自覺 지배하는 경지가 우리가 말하는 聖人, 佛, 神仙의 境地라는 것을 結論지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道란 自己制御, 克己, 自己調伏이기도 하기 때문에 Biofeedback이 또한 道의 生理學的의 根

掘를 明示해주고 있다. 과거에는 主觀的이어서 客觀的으로 연구할 수 없던 것을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

深部知覚, 内部知覚, 条件化의 연구는 특정한 筋肉群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電子裝置를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있게 하고 自律神經의 支配下에 있는 内臟, 胃腸, 心臟血管運動의 制御, 体温이나 筋肉緊張의 制御, 그리고 道僧이 三昧境에 들어가 있을때 腦波를 만들어 내는 훈련을 하는 알파波Biofeedback訓練이 있다. 이것을 Technological Meditation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道의 科學化 또는 機械化라고 볼 수 있으며 修道의 全体性에 비해서는 역시 科學的方法의 断片性을 면치못하나 修道의 物質的인 生理的根拠를 闡明해주는 뜻에서는 道의 鮮明에 一助가 된다고 본다. 또한 東洋醫學에서 以道療病 神爲一身之主라는 생각은 西洋醫學이 20世紀에 와서 비로서 발전시킨 思想과 일치한다.

이상 現代科學과 道와의 관계를 간략하게 살펴 보았으며 다음에는 道의 宗教的 哲學的 精神治療의 인 면을 밝힘으로서 道가 무엇인가를 소개하고자 한다.

3. 道의 宗教的 哲學的 精神治療의 의미

道는 主客一致요, 宇宙의 原理고 主体性이고 無爲고 부처고 聖人이고 至人이고 眞人이며 無己, 無我, 無念, 人格의 成熟이요, 淨心이고, 正心이고 無限히 말할 수 있다. 말로서 할 수 없는 것이 道로 깨친 사람이 깨치지 못한 사람에게 아무리 깨친 소리를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

Alan Watts는 東洋의 儒教, 佛教, 老莊, 힌두教 등은 西洋的인 개념으로는 종교도 철학도 아니고 西洋의 개념으로는 治療라고 말했다.

修道의 목표는 마음이 맑은 거울과 같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주도록 맑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西洋의 精神分析이나 精神治療에 있어서는 否定的인 힘의 分析, 解決 위주로 하나 佛教의 禪 특히 看話禪에 있어서는 肯定的인 힘을 總動員해서 否定的인 힘인 碍膈之物을 녹이는 것이다. 나와 現實사이에 놓여

있으면서 現實을 흐리게 하는 세가지 배일이 있다. 하나는 個人的인 情緒的經驗 卽 佛教에서 말하는 別業妄見이고 두째로는 文化 卽 佛教에서 말하는 同分妄見이다. 세번째로는 有機體 卽 身體의 制限性이다.

西洋의 精神分析이 주로 개인적인 情緒的인 문제를 해소시킨다면 禪은 개인적인 別業妄見과 文化的인 同分妄見의 배일을 걷어치우고 有機體의 배일마저 없애고 現實과 나를 直結시켜서 眞如에 이르는 것이 목표다.

大乘起信論의 記述을 보면 부처는 業識을 淨化함으로서 白淨識이 되어 森羅萬象을 맑은 거울과 같이 비추어준다. 부처의 다음 段階인 菩薩은 業識의 痕跡이 남아있고 轉識, 現識, 智識, 相續識이 완전히 淨化된 상태를 말한다. 業識에서 派出되어 나오는 것이 轉識, 現識, 智識 相續識이고 現識까지가 無意識이고 智識, 相續識은 意識的인 부분에 해당한다.

이 菩薩의 記述은 西洋의 精神分析에서의 성숙된 分析者의 記述과 흡사하다. 成熟된 分析者는 無意識的인 主動機의 흔적이 남아있으나 이것을 자각하고 制御해서 患者 理解와 治療에 妨害가 되지않게 하고 自己 집안이나 國家民族뿐만 아니라 全人類에 대한 關心을 갖는다.

不安을 처리하는 각도에서 본다면 西洋의 精神分析者 實存哲學者들 精神治療者들은 최고의 精神分析治療로 病理的이고 神經症的인 不安은 없앨수 있지만 정상적이고 實存的인 存在論的인 不安은 如何한 방법으로도 없앨수 없다고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그러나 禪에서는 生死之心을 타파함으로써 정상적인 實存的 不安마저 없애자는 것이다. 精神分析治療의 과정과 尋牛圖에 그려진 覺의 과정도 일치하는 점이 많다.

道의 現代的意義는 西洋文明이 神이란 支柱와 科學技術을 발전시켜서 자신을 해방시키려고 했지만 오늘날 神이란 支柱의 喪失과 道具의 背反을 直面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와 반대로 東洋人은 적어도 2500年 이전부터 이러한 모든 위험을 豫見했었다. 東洋人의 中心的인 관심은 이러한 人格神과 道具로부터

의 해방을 이루는 것이었다. 그것은 自己内部를 省察 검토하고 자기를 制御 調伏하고 자신의 주인공이 되어 진정한 自我를 찾는 노력이었다. 이것이 곧 道요, 主体性이고 동양의 휴머니즘이고 휴머니즘의 極致다. 西洋文化는 Platon 이후 Catharsis (淨心)을 해야 眞理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할뿐 實踐을 해오고 있지 않았다.

4. 結 語

東洋人은 外的世界를 인식하고 지배하는 技術을 천시하고 内的世界를 이해하고 정복하는 것을 至上의 목표로 삼고 道를 숭상해왔다.

오늘날 西洋人은 外的世界의 정복에 自己理解와 自己支配 없이는 自己破滅의 위험이 增大됨을 깨닫고 인간의 内部世界의 이해와 自己支配, 人間成熟의 필요성을 느끼고 實存思想, 精神分析, 神經生理學에서는 人間内部의 이해와 지배, 인간의 成熟을 지향으로 있으며 이와 병행해서 東洋의 道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다.

한편 東洋에서는 과거에 外部世界征服을 賤視한 전통으로 科學技術의 발달이 뒤진 결과 西洋의 침략을 받고 빈곤에서 허덕이던 쓰라린 경험에서 소위 近代化란 旗幟下 급속히 科學技術을 도입하려는 나머지 우리의 道를 완전히 무시하고 파괴하는 近代化로 달음질 해왔었다.

그러면서 西洋文明은 전세계를 뒤덮어 機械化, 組織化로 外的支配를 강화해감으로서 인간의 内的支配는 弱화되는 非人間化 人間喪失 自己喪失로 달음질 치고 있다. 여기에서 절실하게 現代文明의 위기를 극복하는 治療劑로서 道의 至大한 의의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道는 主体性이고 自覺이며 自己支配요, 内的支配인 동시에 最高의 成熟이요, 自由이고 또한 自律이며 建設의인 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西洋人의 근대화는 西洋의 傳統的인 科學技術을 바탕으로 東洋의 傳統的인 道를 섭취하는 것이고 東洋人의 근대화는 東洋의 傳統的인 道를 토대로 西洋의 傳統的인 科學을 섭취하는 것이다. 결국은 사람이 문제라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전통의 核心인 道다.

□ “과학과 기술”지 投稿案内 □

=論 壇= 가. 學術論壇: 産業發展에 寄與할 수 있는 國內외의 最新 科學技術
나. 學術情報: 새로운 海外의 科學技術 情報 紹介

=固 定 欄= 가. 科學隨感: 生活周邊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事例中 科學技術의인 내용을 소재로 한 것
나. 漫畫: 科學技術界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소재로 한 것

=原稿枚數= 가. 論壇, 기타 原稿: 24枚内外(200字 원고지)
나. 科學隨感: 8枚内外(200字 원고지)
다. 寫眞: 1枚(명함판)

=其 他= 外來語表記는 文敎部에서 指定한 표기법을 사용하고 도량형은 政府가 指定한 도량형法인 미터法으로 표기해야 함. (採択된 원고에는 所定의 原稿料를 드립니다.)